

수장 바뀐 금융지주, 당국 '상생금융 기조' 발 맞춘다

하나銀, 새희망홀씨 대출금리 인하
BNK금융, 스타트업 투자펀드 약속
KB금융, 가계대출금리 일제 인하
신한은행, 이자비 1000억 등 혜택

주요 금융지주의 새 수장들이 잇따라 '상생금융'에 나서고 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짙어지는 가운데 금융당국과 함께 상생금융에 적극적이다.

NH농협금융, 신한금융, BNK금융, 우리금융 등 네 곳의 최고경영자(CEO)가 교체됐다. 신한금융지주 진옥동 회장, 우리금융지주 임종통 회장, 농협금융지주 이석준 회장, BNK금융지주 빈대인 회장 등이다.

주요 금융지주 회장들은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선임된 만큼 금융당국과 보조를 맞추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시중은행을 잇따라 현장 방문해 상생금융을 강조하고 있다. 이 원장은 이달 들어 BNK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오른쪽)이 지난 24일 신한은행을 방문해 정상혁 신한은행장과 상생금융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산은행과 KB국민은행, 신한은행을 잇따라 방문해 상생금융 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원장은 오는 30일 우리은행 방문을 끝으로 4대 시중은행 상생금융 현장 행보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시중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새희망홀씨대출 등 대출금리 인하, 중소기업 지원책 등의 상생금융 관련 상품을 내놓은 상태다.

4대 시중은행 중에선 하나은행이 가장 먼저 지원책을 내놨다. 하나은행이

지난달 28일 서민금융상품인 새희망홀씨대출의 신규 취급 금리를 최대 1%포인트(p) 인하하는 등 지원방안을 발표했을 때 이 원장은 하나은행 본점을 찾아 금융 취약계층 지원을 독려했다.

특히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취임 1주년을 맞아 그룹임원간담회를 열고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수수료 결정체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

그러면서 고금리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들을 위해 ▲금융상품 개발 단계에서부터 이자와수수료 결정체계의 원점 재검토 ▲감면 요구권 확대와 수용 ▲정확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선제적 문제 해결에 적극 동참할 것을 주문했다.

빈대인 BNK금융그룹 회장도 취임 첫 일정으로 스타트업 지원센터 '썸(SUM) 인큐베이터'를 찾아 상생 금융의 지를 드러냈다. 빈 회장은 스타트업 대표와 만나 부산·울산·경남 스타트업 투자 전용 펀드를 조성해 상생 금융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일 신용대출 등 가계대출 금리를 일제히 인하하고 연간 1000억 원 이상의 이자 경감 방안을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신용대출 금리 최대 0.5%p 인하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금리 각 0.3%p 인하 등을 제시했다. 2금융권의 신용대출을 낮춘 금리의 은행권 대출로 바뀌는 KB국민회

망대출도 지난 27일 출시했다.

앞서 신한은행은 이자비용 1000억원과 금융비용 623억원의 혜택을 제공하는 '상생금융 확대 종합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담보대출 신규 및 대환 고객을 대상으로 금리를 0.4%p 내렸다. 또한 전세자금대출과 일반신용대출은 신규·대환·연기 고객 모두를 대상으로 각각 0.3%p와 0.4%p금리를 인하하기로 했다.

오는 30일 이복현 금융감독원의 우리은행 방문이 예정됨에 따라 우리은행이 어떤 서민금융지원책을 내놓을지도 관심이 쏠린다. 우리금융이 금융당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제시할 것인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지주 관계자는 29일 "주요 금융지주가 리스크 관리와 함께 사회공헌까지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최근의 화두는 금융당국이 강조하는 상생금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metroseoul.co.kr

소비 회복에 작년 카드결제 일평균 3.1조

2022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외출 증가
전체 결제 중 비대면결제가 40%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이용규모가 하루평균 3조1000억원을 넘어섰다. 민간소비가 개선되고, 사회적거리두기 해제로 외출이 늘면서 대면결제가 확대된 영향이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2022년 중 국내 지급결제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체크카드 등 지급카드 이용규모는 하루평균 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과 비교해 12.7% 증가했다.

이는 사회적거리두기 해제의 여파로 외출이 늘면서 민간소비가 회복된 영향이다. 실제로 한국은행에 따르면 민간

소비는 2020년 -3.8%에서 2022년 8.8%로 늘었다.

카드 종류를 보면 신용카드 이용규모는 13.5% 늘어난 2조4530억원, 체크카드는 9.6% 증가한 6370억원으로 나타났다. 선불카드 이용 규모도 15.1% 증가한 14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비대면결제는 하루평균 1조1010억원으로 1년사이 8.8% 증가했다.

비대면결제는 온라인 쇼핑물 결제 등 비대면 거래뿐만 아니라, 택시 호출·결제 등과 같이 단말기 접촉없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통해 결제가 이뤄지는 현장결제를 포함한다. 전체 결제 중 비대면결제 비중은 40.1%를 차지

했다. 사회적거리두기 조치가 해제된 이후로 외출과 여행 등이 활성화되면서 대면 결제도 크게 늘었다. 대면결제 이용 규모는 일평균 1조645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12% 증가했다.

다만 대면결제 시에도 실물카드보다 모바일 기기 등을 이용한 결제규모가 크게 증가했다. 모바일 기기 등을 통한 결제는 하루 평균 2290억원으로 1년전과 비교해 46.9% 증가했다. 카카오페이, 삼성페이 등 카드정보를 모바일 기기 등에 저장해두고 비밀번호, 지문인식 등 간편 인증수단을 통해 결제했다는 설명이다. 실물 카드를 사용한 경우는 1조4160억원으로 같은 기간 7.8% 늘었다.

/나유리 기자 yul115@



'KB희망서포터즈' 9명과 박청 KB손해보험 CPCCI디지털부문장 전무(두번째줄 왼쪽 다섯번째) 및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KB손해보험

KB손보, 희망서포터즈 17기 발대 교보생명, 국대 축구팀 공식 후원

보험 브리핑

KB손해보험이 소비자 패널 운영을 통해 서비스 품질 제고에 나섰다. ◆고객 관점 개선사항 수집해 '신속 반영'

KB손해보험은 공식 고객패널인 'KB희망서포터즈' 17기 발대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012년부터 운영에 나선 'KB희망서포터즈'는 향후 약 4개월간 운영할 계획이다.

17기로 선발한 패널 9명은 소비자의 관점에서 개선사항을 제안할 예정이다. 새롭게 출범한 패널과 함께 120여 명의 모바일 고객패널도 함께 운영한다. 모바일 설문조사 방식으로 상품, 제도, 서비스 등에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DB손해보험이 대학생 서포터즈를 통한 아이디어 수집에 나섰다. ◆현장 체험활동 및 원주DB프로미 경기 관람

DB손해보험은 대학생 서포터즈 드림러 11기 발대식을 진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드림러(DREAMER)'는 20대와의 소통을 통해 상표가치를 강화하고자 마련한 프로그램이다. 현직 실무자와 대학생들이 함께하는 참여

형 서포터즈로 지난 2018년부터 운영을 시작했다.

드림러 11기는 9명을 선발했다. 지난 10일을 시작으로 서포터즈 활동에 필요한 보험기초교육을 3일간 받았다. 이후 원주사업단과 원주보상센터를 방문해 업무에 관한 이해도를 높였다. 앞으로 직무체험, 온라인 바이럴 콘텐츠 제작, 오프라인 홍보활동 기획·시행, 보험 영상 제작 등의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교보생명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과 동행을 이어간다.

◆도시·산간 지역 및 취약계층 축구 꿈나무 육성
교보생명은 대한축구협회와 오는 2027년까지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파트너 후원 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28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진행된 'KFA-교보생명 공식파트너 계약 조인식'에는 편정범 교보생명 대표이사 사장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교보생명은 지난 2002년을 시작으로 국가대표 축구팀 공식파트너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2027년까지 4년간 KFA와 파트너십을 연장한다. 오는 2026년 열리는 유나이티드 월드컵에도 파트너사로 참여한다. /김정산 기자

동양생명, 최대 15% 저렴한 가성비 종신보험 출시

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
간편심사만으로 편리하게 가입 가능

동양생명이 가성비와 편의성을 한번에 담은 종신보험을 출시했다.

동양생명은 저렴한 보험료로 간편가입이 가능한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을 출시했다고 29일 밝혔다.

(무)수호천사간편한알뜰플러스종신보험의 계약환급금은 기존의 50% 수준이다. 그러나 보험료를 최대 15% 낮춰 설계했다. 낮은 비용으로 종신보험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만들었다.

간편심사만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3개월 이내 입원, 수술, 추가검사에 대한 필요소견 ▲2년 이내 질병 및 사고로 인한 입원·수술 이력 ▲5년 이내 암 진단·입원·수술이력 등 3가지에 해당



하지 않는다면 과거 병력과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금 지불 유형으로는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동일하게 납입하는 '평균 납입형' 및 납입기간에 따라 보험료를 책정하는 '체감납입형' 등 두가지로 구성했다.

보험금 수령 방식은 상품별 동일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는 기본형과 보험

계약 1년 후부터 매년 250만원씩 20년간 사망보험금이 늘어나는 체증형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납입기간이 지난 경우금리 연동 종신전환형 계약으로 전환해 사망보험금을 미리받는 연금설계 옵션 등을 통해 노후 대비가 가능하다.

금리확정형의 경우 10년 미만 예정이율은 연 3.25%다. 유지보너스도 가입금액에 상관없이 납입기간에 따라 최대 13%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간편한 고지를 통해 종신보험의 혜택을 합리적인 보험료에 받을 수 있도록 상품을 출시했다"며 "종신보험 가입을 원했지만 복잡한 청약절차 등으로 가입이 어려웠던 고객들에게 권하고 싶은 상품이다"라고 말했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